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16일 오후 7시 정관도서관 소두방어린이극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장 인문공감 아카데미’ 5월 강연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강연에는 전쟁사 저자로 유명한 역사학자 임용한 박사가 초청 강사로 나섰다. 임용한 한국역사 고전연구소장은 ▲한국고대전쟁사 1~3 ▲시대의 개혁가들 ▲세상의 전략은 전쟁에서 탄생했다 ▲명장 그들은 이기는 싸움만 한다 등의 저서를 집필하였고, ▲KBS 역사스페셜 ▲JTBC 차이나는 클라스 ▲YTN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유튜브 ‘임용한TV’등의 방송에도 출연하면서 활발한 강연활동을 하고 있다.이날 임 교수는 ‘[역사의 비밀] 성공하는 집단과 실패하는 집단’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고, 현대에도 접목할 수 있는 전략과 지혜 등을 강연하면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끌어냈다.한 강연 참가자는 “저명한 박사님을 직접 대면해 강연을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는 좋은 기회인 만큼, 다음 강연에도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기장 인문공감 아카데미’는 인문학을 매개로 군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장(場)으로, 인문학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문학 도시 조성을 위해 기장군이 추진하는‘인문학 특화 강연프로그램’이다.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기장군청(차성아트홀)과 정관도서관(어린이극장)을 순회하면서 모두 7회에 걸쳐 진행되며, 특히 최신 트렌드와 이슈를 반영해 다양한 계층이 공감하는 맞춤형 강좌를 마련해 군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